

2015 광주시정 결산 <상>

성공U대회 저력으로 3대 미래 먹거리 발판 마련

<자동차·문화·에너지>

광주시는 올 한해 ‘청년을 위한 도시’·‘더불어 사는 도시’를 표방한 민선 6기 시정 철학을 정책과 사업으로 본격화하는데 주력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조성에 힘쓰고, 이를 위한 자동차산업 등 미래산업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2015년 한해 광주시정의 성과와 의미를 8개 부문에 걸쳐 살펴본다.

1 미래 먹거리 확보

민선 6기 광주시는 미래 먹거리로 자동차, 에너지, 그리고 문화를 3대 핵심 축으로 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했고, 각각의 노력 끝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의 국비 반영에도 성공했다. 또한 한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사업도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달 25일 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했다. 문화전당은 장차 광주의 주력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각종 콘텐츠 생산과 소비, 거래가 광주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연관 사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한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사업은 올해 제도와 예산 근거 확보 등 든든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대통령 공

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전용산단 지정을 위한 산단 설계비로 내년도 국비에산 30억원을 선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을 위한 국비 20억원도 확보해 미래형 청정에너지인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료전지차를 시범 보급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선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광주는 미래 먹거리로 에너지산업에 주목하며 ‘에너지 밸리’를 구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에너지밸리는 혁신도시와 광주를 포함한 인접지역을 스마트 에너지 허브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비전과 함께 매년 R&D 100억원 이상 투자, 2020년까지 기업유치 500개, 전문인력 양성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한전과 광주가 특별히 공을 들인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14개 기업이 광주지역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 더불어 사는 공동체

윤장현 시장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결재했다. 이후 올 들어서만 총 421명의 비정규직 용역직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면 정규직(공무직)으로 정식 채용돼 고용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내년에도 총 27개 지방 공공기관의 용역노동자 376명을 직

접 고용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과 생활임금제 도입에 나섰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광주시 결정된 2016년 생활임금은 시급 7839억원, 월 163만8350원이다.

더불어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와 삶을 누리는 포괄적 복지실현을 위해 광주형 시민복지기준도 마련 중이다.

3 하계U대회 성공 개최

지난 7월 열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광주공동체의 역량과 남도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대 계기가 됐다.

특히 ‘메르스’를 완벽히 차단했다. 참가 선수와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켰고 궁극적으로는 메르스 위험 국가라는 오명을 씻어냈다. 국격을 높이고 나아가 광주시민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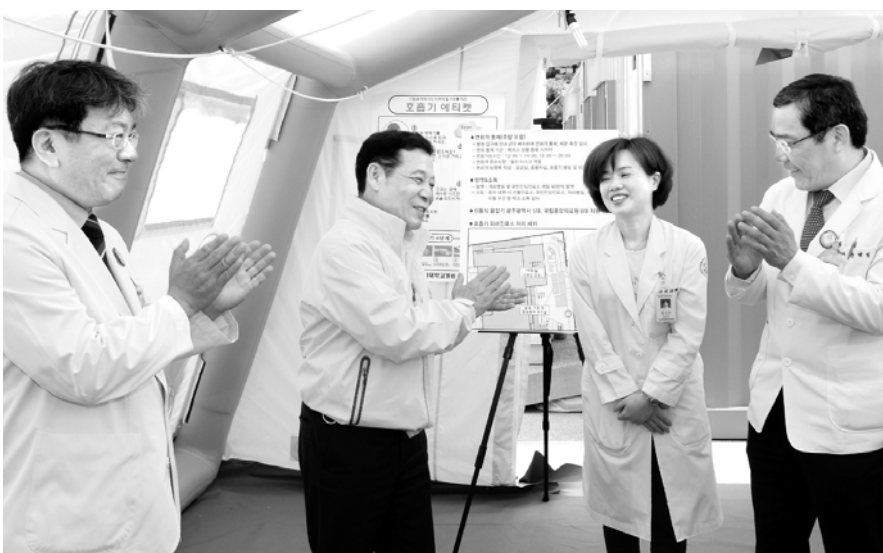
또한 ‘저비용 고효율’ 원칙을 내세워 광주시와 광주유대회조직위는 당초 8171억원이던 총 사업비를 세 차례의 조정에 걸쳐 6172억원으로 줄였다. 무려 1999억원을 절감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남도의 맛을 마음껏 자랑한 점이 큰 수확이다.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 ‘팜투어’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80여개국 3338명이 투어에 참여, 남도의 자연과 역사, 전통을 체험했다.



세계 대학 스포츠 축제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가 지난 7월 3일 개회식을 갖고 화려한 불꽃 축제를 쏘며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6월 전남대병원을 찾아 메르스 환자 완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들은 뒤,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4 시민과 함께 한 시정

민선 6기 들어 더욱 활발해진 시민의 시정참여가 올해는 정착 단계로 진입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참여예산제’는 참여 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형식적인 예산심의위원회 참여가 아니고 마을의 일들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발굴해 예산을 배정받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들은 광주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도 시민들이 직접 짰다. 그간 도시의 주인이고 구성원인 시민들은 배제한 채 행정과 소수의 전문가들이 안을 마련하고 형식적인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미래 도시구조를 설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시민참여는 도로관리 부문까지 확대됐다. ‘빛고을 길 지키기 밴드’가 바로 그 것이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불편사항을 인지해 밴드에 위치와 사진을 접수하면 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즉각 문제해결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해 실행하고 있으며 공약시민배심위원회를 운영해 시민들이 공약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토록 하는 등 시정의 전반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자치의 본질은 주민참여이며, 참여는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찾아 직접 해내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구축돼 더욱 활발하고 효율적이며 살기좋은 광주공동체가 되도록 시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산구, 에너지 산업 2300억 투자유치

수완·신창동 일대 연료전지·바이오가스 발전소 건립

광주 광산구가 에너지 전문기업과 손잡고 2000억원대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스마트그리드’사업을 비롯,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을 건립한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수완에너지(주)와 오는 2018년까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등 발전소 건립을 위한 2300억원원을 투자하는 MOU를 체결했다. 광산구는 해당 투자유치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90메가 와트(MW)전력과 시간당 27기가 칼로리(Gcal)열 생산 설비를 관제할 통합운영센터를 구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전력은 1만75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4만6000기가 칼로리(Gcal) 규모의 열은 수완 및 하남2, 3지구와 첨단2단지 등에 지역난방용으로 활용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오는 2016년 기존 수완동의 열병합발전소에는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근 신창동에 펄렛을 활용한 바이오발전소를 세운다. 이 과정에 광산구는 국비 5억5000만원을 수완에너지(주)측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완에너지(주)는 “오는 2018년 해당 시설이 완공될 경우 집이나 건물 등에서 쓰고 남은 전력이나 인근의 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전원)를 기존 전력망을 통해 교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 전력이 부족한 곳에는 남은 쪽이 송전할 수 있고, 판매 또한 가능해 환경과 경제 그리고 효율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래형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노사민정 협력’ 국무총리상

합의 중재·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모범

광주시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15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첫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후 4년만의 성과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의 실질적인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협의회를 정비해 노동계의 참여를 높이고 실무분과위를 통·폐합해 5개 실무분과위를 구성,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지역의 현안을 다루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해왔다.

특히,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시책이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먼저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해 현장형 업무 추진을 강화하고, 지역 노사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차원에서 중재를 지원해 금호타이어 임단협 합의를 요구했으며, 현대위아 파업을 해결한 사례 등은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현장형 해결의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또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새로운 고용 형태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 추진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민주노동총과 사회공공협약을 체결 ▲시 노동정책 수립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의 노력도 광주시만의 성과로 평가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브랜드 ‘김치광’ 중국에 3억 수출계약

광주시는 광주김치공동브랜드인 ‘김치광’이 중국 청도의 김치업체 2곳과 총 3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와 (사)광주명품김치사업단은 22일 청도에서 청도지역 김치업체인 경북공사(대표 문지혜), 서안지역 김치업체인 코시안사(대표 신희주)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시기와 물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경북공사와 코시안사는 지난 10월 열린 제22회 광주세계김치축제의 초청 인사로 방한해 (사)광주명품김치사업

단과 수출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수출 물량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7t(3000만원)씩 총 70t(3억원 상당)이며, 첫 수출은 배추김치, 갓김치, 무침김치 3개 품목으로 내년 3월 중순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문단은 수출계약 체결 외에도 광주김치 판로 개척과 원활한 김치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공항면세점 내 광주김치 입점에 대해 면세점 관계자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신축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투자)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	법 른 경 매 (특수물건 추천)	경매교육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 ☆ 월 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만, 융 7억) 매가 15억 5천	(4층) 신축원룸 1층 (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4면 올 대리석 시공 신축 원룸 / 내부 깨끗 / 풀오피션 (보 4천만, 월 500만, 융 1억2천만) 매가 6억 7천만 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20만) → 매가 7억8천만 ③ 용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①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주택) (토 81평, 건 30평) 압록역,성진강 부근 주택 추천 → 매가 5천만 ②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올수리 (용5천)(보1천월60만) → 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점 (용4천)(보5백,월 42만) → 매가 7천5백만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점 (용5천)(보,5백,월50만) → 매가 8천5백만 ⑤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점 (용2천)(보3백,월33만) → 매가 5천만 ⑥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역변출구 3분 (용1천)(보2백,월32만) → 매가 3천8백만 ⑦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⑧ 광양 광영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5백만 ⑨ 상무지구 정영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월70만) → 매가 1억3천만 ⑩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22칸) 2층~3층 (원룸6개,투룸2개) 4층 (주택) (보 4천 , 월 520만) → 매가 6억8천만 ⑪ 커피숍 임대 (25평,1층 도로점) (시설비 4천만, 보 2천만 월 150만) → 매가 1억3천만	1. 북구 오룡동 (토 500평,건 900평) ※ 1층 (상가) 2층~7층(오피스텔 룸 56개) 8층 (41평,주택및사무실) 삼성전자 정문 앞 , 공단및교육시설 단지 감정가 35억 → 최저가 19억8천만 2. 남구 주월동 (토 206평,건 64,5평) ※ 남구청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감정가 16억8천 → 최저가 11억8천만 3. 광산구 박오동 (토300평,건150평) ※ 단층 영업소 식당 , 황용강 부근, 도로점 감정가 4억 6천 → 최저가 4억 6천 4. 서구 마복동 (토 342평,건 84평) (주유소) ※ 광주아울렛 뒷편 , 투자적합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 5. 북구 중흥동 (토 84평,건 385평) (의료시설) ※ 광주역 남동측 부근 도로점, 한방병원 시설원비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5억8천만 6. 광산구 서봉동 (토 40평,건 44평) ※ 송산 유원지 부근, 황용강 부근, 도로점 감정가 7천 2백 → 최저가 7천2백 ★ 직원 구함 ★ 부동산,경매 직원 구합니다 경매 입찰부터 매매,개발기획까지 함께 배우실분 모집합니다.	바로실천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경매 물건 추천 1. 남구 병림동 (토 207평,건333평) (근린시설)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 2.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 감정가 10억 → 최저가 6억 3.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 (토12평,건90평)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3억5천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010-7384-7800		010-6670-9800		010-6834-44800 / 010-6832-9700